성북구의 문학이야기

감차미와 친차미

글/그림: 김정현

sb 성북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성북구의 문학 이야기
감차미와 진차미

발행일 | 2024. 4. 30.
발행인 | 성북구청장
발행처 | 성북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글·그림 | 김정현
디자인 | 김정현
기획·편집 | 성북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9)
자료제공·자문 |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펴낸곳 | 한울타리
비매품

ⓒ 성북문화원, 성북구청, 2024

본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 및 디자인의 저작권은 김정현(작가)에게 있으며, 작가, 성북구청, 성북문화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목차

프롤로그 ····· 4

1화 - 김광섭 집터 「성북동 비둘기」 ····· 6

2화 - 삼선교 「쌍무지개 뜨는 언덕」 ····· 9

3화 - 옛 돈암동 「목마른 계절」 ····· 12

4화 - 정릉동 「내가 사는 주변」 ····· 15

5화 - 길음동 「신풍근배커리 약사」 ····· 18

6화 - 보문동 「우리 동네」 ····· 21

7화 -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 24

8화 - 미아리고개 「애인」 ····· 27

9화 - 아리랑고개 「상현」 ····· 30

10화 - 돈암시장 「돈암동 파 할머니」 ····· 33

11화 -낙산 「할미꽃 의젓이 피는 낙타산록의춘색 」 ··· 36

12화 -혜화문 「폐인」 ····· 39

13화 - 조지훈 집터 「방우산장기」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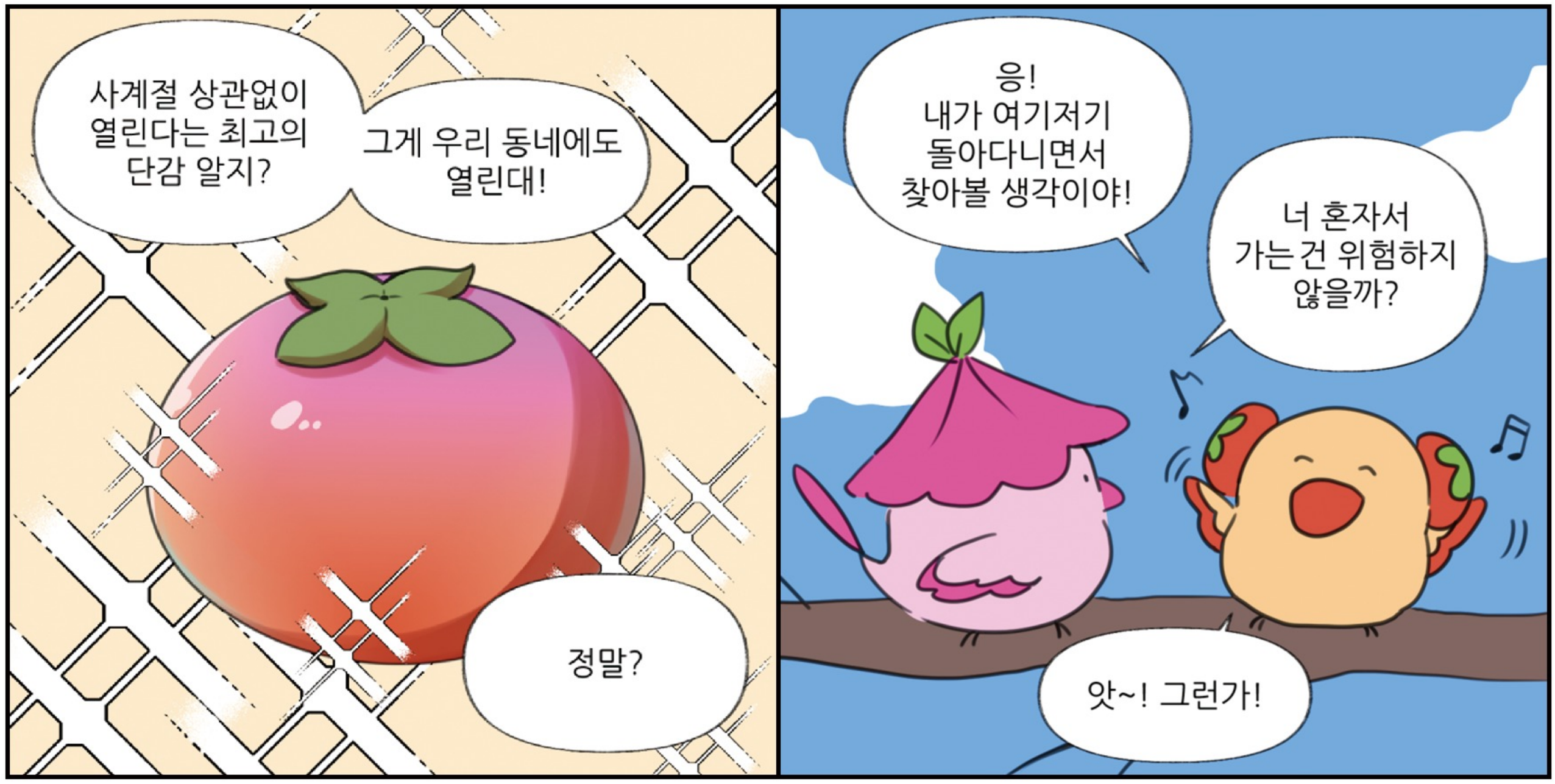
14화 - 성북동 「노시산방기」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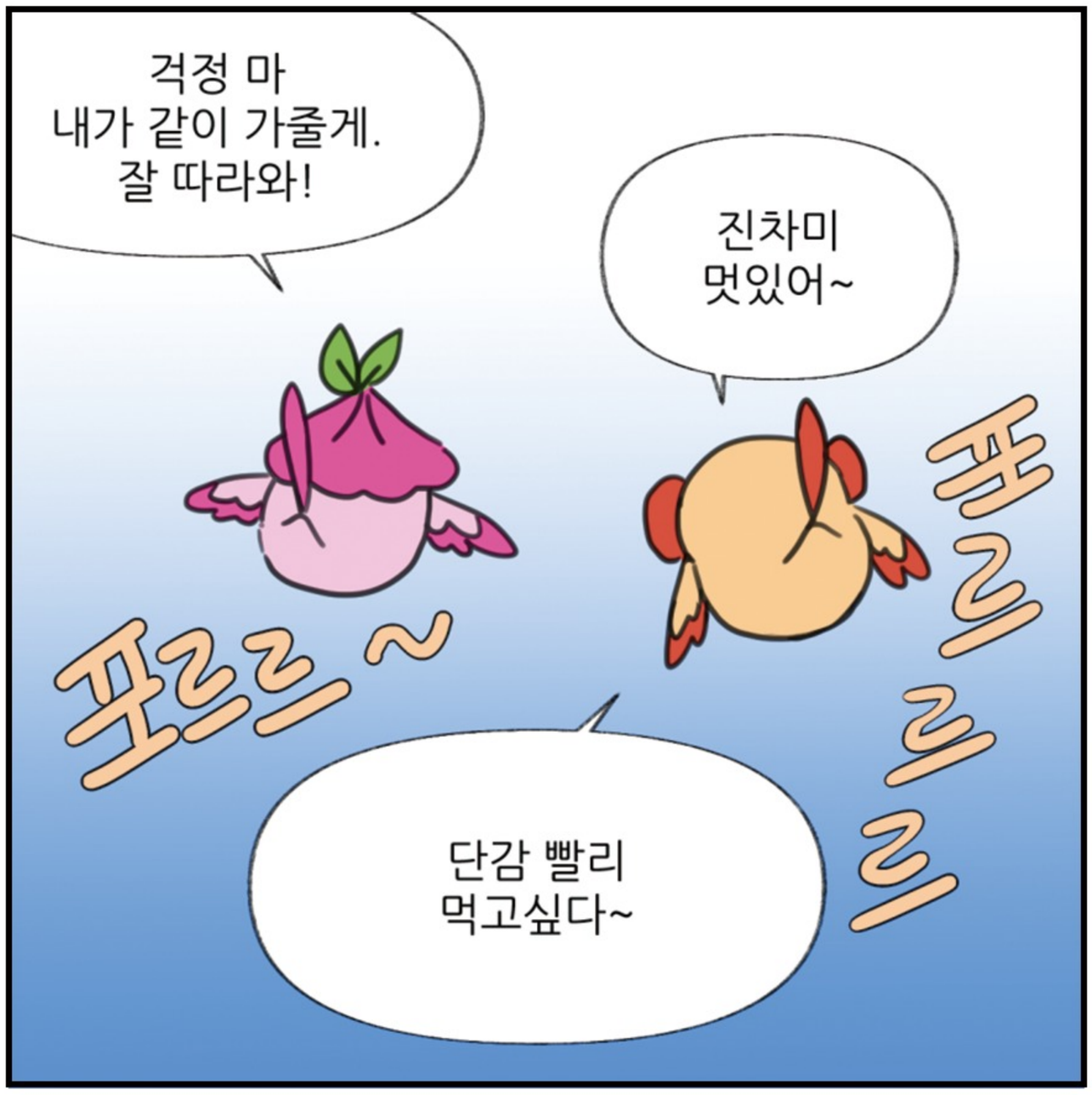
15화 - 성북구 성북동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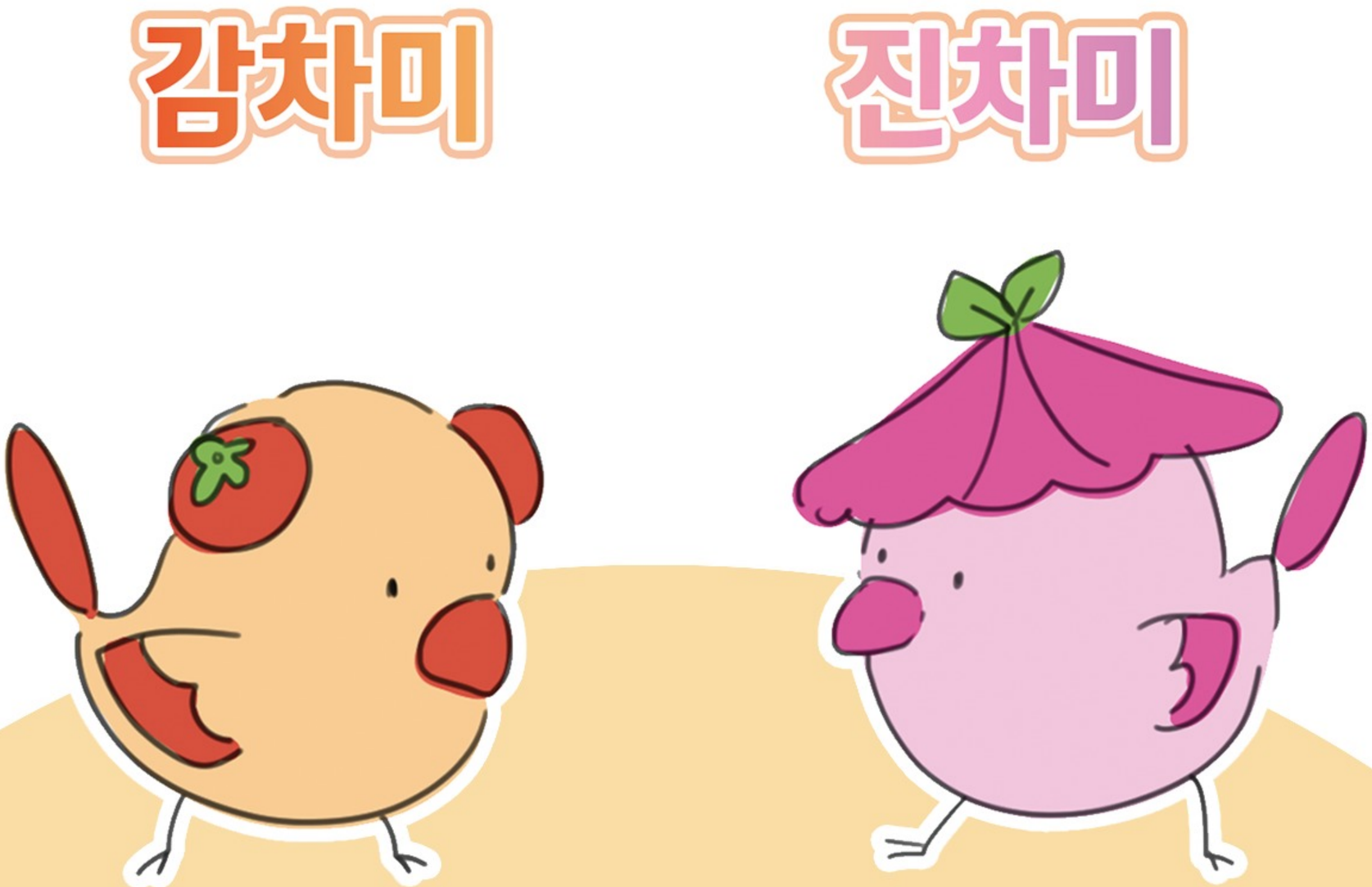
후기 ····· 51

프롤로그


세상에서 단감을
가장 좋아하는 참새
감차미
푸르르르
푸르르
오늘도 힘차게
성북구의 하늘을
날아다닌다.
진차미!
내가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어 들어줘.
이 참새는
진달래 참새인 진차미.
감차미의 단짝이다.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사계절 상관없이
열린다는 최고의
단감 알지?
그게 우리 동네에도
열린대!
정말?
응!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볼 생각이야!
너 혼자서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앗~! 그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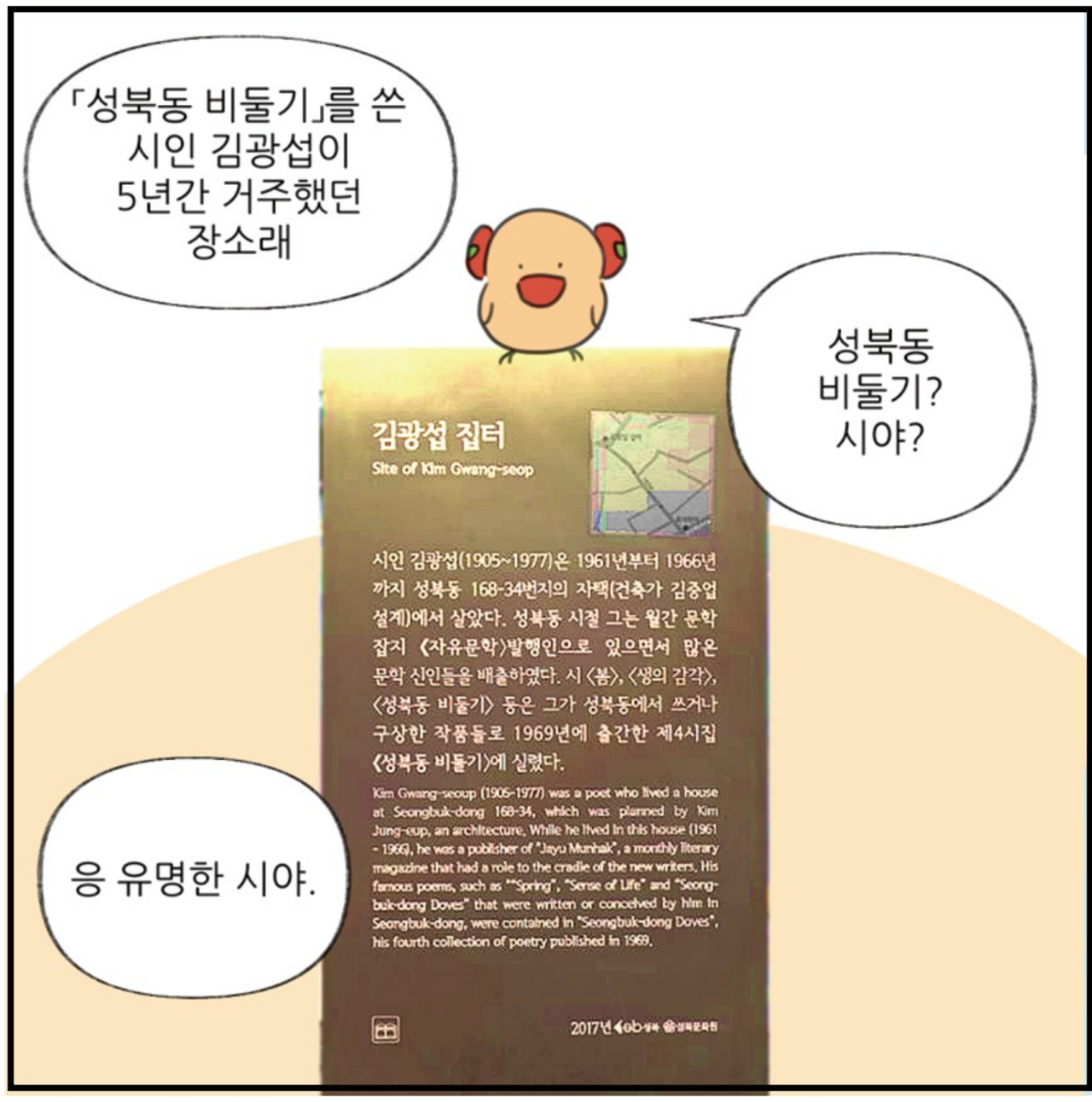
성북구의 상징인
감과 참새가 합쳐진
달콤한 단감 참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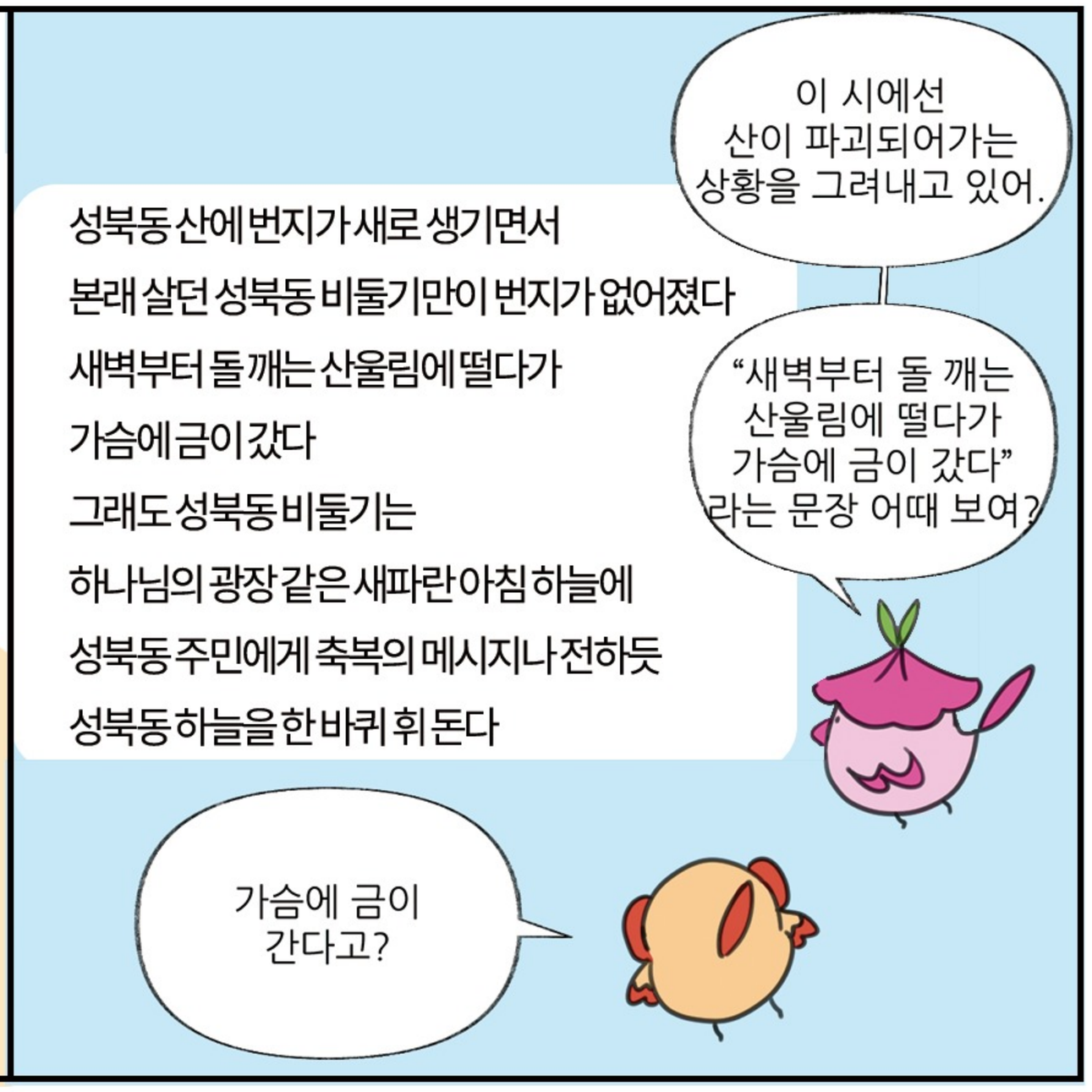
성북구의 상징인
진달래와 참새가 합쳐진
향긋한 진달래 참새예요

01화. 김광섭 집터 - 성북동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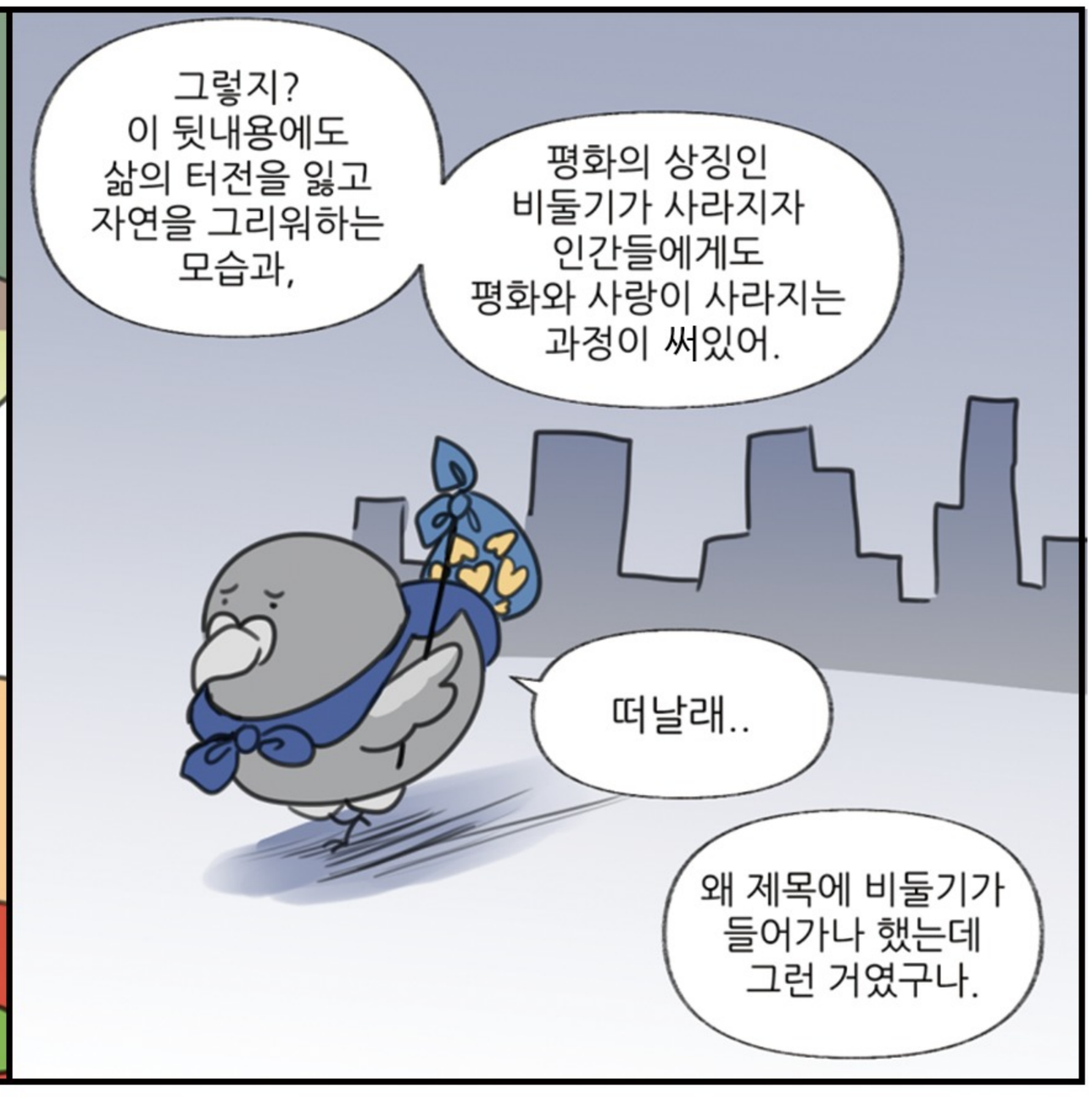









아파..
음...
아파 보이네..
슬픈 것 같기도..


그렇지?
이 뒷내용에도
삶의 터전을 잃고
자연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사라지자
인간들에게도
평화와 사랑이 사라지는
과정이 써있어.
떠날래..
왜 제목에 비둘기가
들어가나 했는데
그런 거였구나.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삭막해져버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외견은 멋지지만
속은 텅 빈 참새 같은걸.
그.. 그런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거니까..


아무튼 이 시에서의
성북동은
그런 피폐한 도시를
나타낸다는 거지.
산이 파괴되면서
네가 좋아하는 감나무도
왕창 사라졌고 말야.
그건 끔찍해~!
으아앙
감차미! 어디가!
같이 가야지!
-끝-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감차미, 여기가 바로 「성북동 비둘기」를 쓴 시인 김광섭의 집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성북동 비둘기」 라는 제목보단 「성북동 참새」가 더 멋지다고 봐.



물론 참새가 더 멋있고 늠름한 최고의 새긴 하지. 그치만 성북동 비둘기는 파괴되어 가는 자연, 문명에 소외된 인간 등을 상징하고 있어서 참새보단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더 어울리긴 해.



흑.. 그나저나 김광섭 시인은 성북동에서 계속 산 거야?



김광섭은 시인이자 언론인이자 교육자였는데 성북동에 살기 시작한 건 1961년이었대. 그전에는 1933년부터 모교인 중동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1940년까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1941년 2월 이로 인해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

그 후 성북동에 살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기간 병석에 있었고, 그동안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성북동 집에 대한 애착을 잃고 동소문동을 거쳐 미아동으로 이사했대.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자고~!

2화. 삼선교- 쌍무지개 뜨는 언덕









은주와 민구는 삼선교 역에서 내려 오른편으로 개천을 끼고 한참 걸어가다가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 언덕에는 일제 시대에 방공굴로 팠던 구멍이 삥 돌아가며 예닐곱개 뚫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방공굴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마니를 붙여 놓은 문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왔다.
"저녁 먹고, 너의 집에 갈게."
민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 방공굴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갔다.
바로 그 민구네 방공굴 옆으로 좁다란 길이 언덕 위로 하나 뻗어 있다.
그리고 그 길이 뻗어 올라간 언덕 위에는 판잣집이 세 채 서 있다.
그 세 채 가운데 한 채가 은주네 집이다.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이 있는 집이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내성『쌍무지개 뜨는 언덕』



나.. 전부 읽어봤어.. 정말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지..



감차미 맘에 들었다니 다행이야~! 이 소설을 쓴 김내성 작가는 1936년 가회동, 명륜동, 돈암동 셋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소설 『태풍』의 인세로 성북동 집을 장만했대. 1948년에는 돈암동 69-10번지에 집을 마련했다고 해. 김내성 작가의 다른 작품도 보는거 어때?



어떤 작품을 냈는데? 감동물? 액션물?



일단 김내성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야. 일본 유학중에 탐정소설 전문지에 투고한 작품이 등선됐대.
1937년 『조선일보』 에 연재한 탐정소설 「가상범인」이 문단에 처음 선보인 추리소설이라고 해.
그 외에 『똘똘이의 모험』(1946), 『청춘극장』(1953) 등의 작품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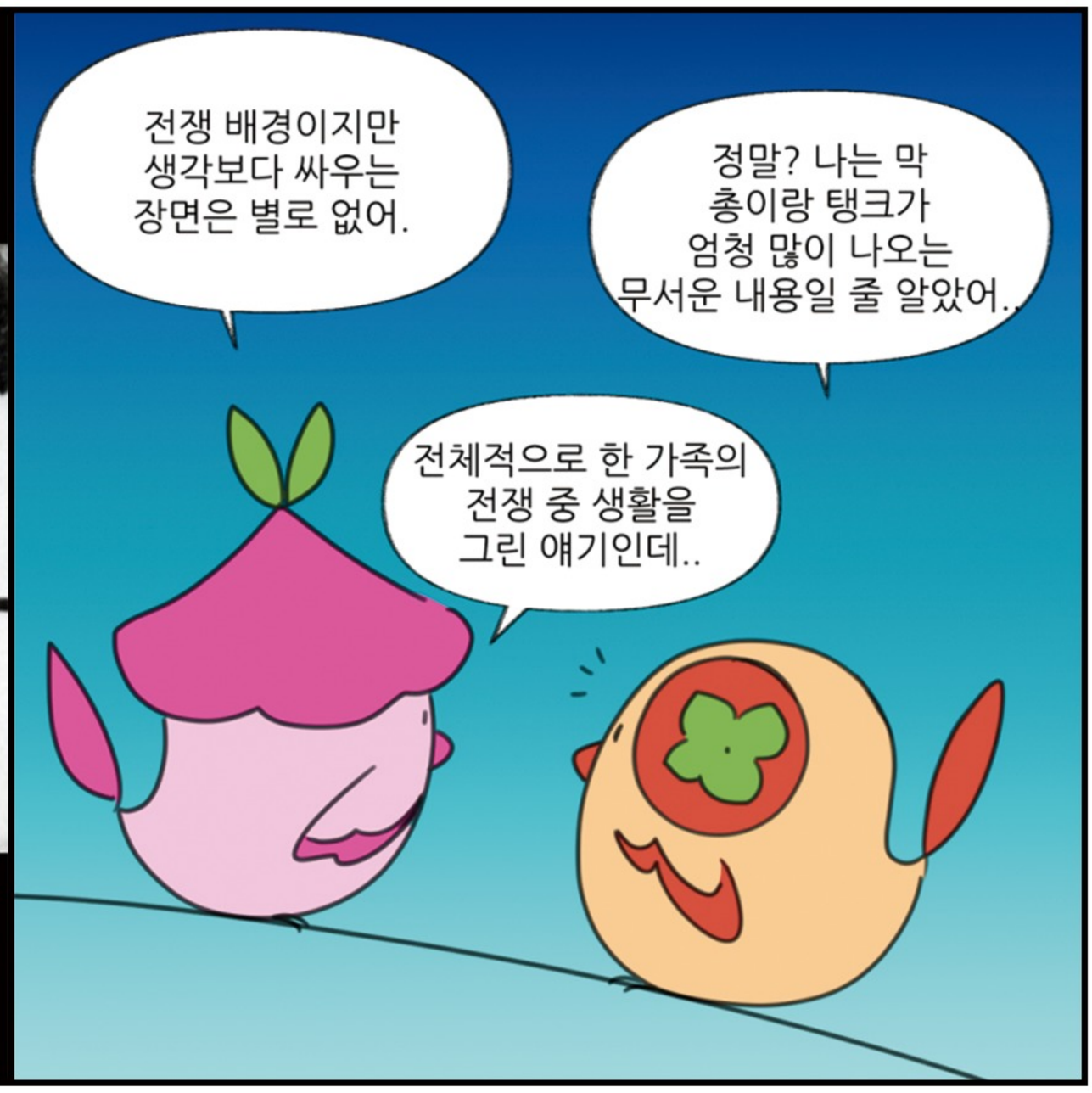
음~! 너무 많으니까 일단 메모만 해둘래.

3화. 옛 돈암동 - 목마른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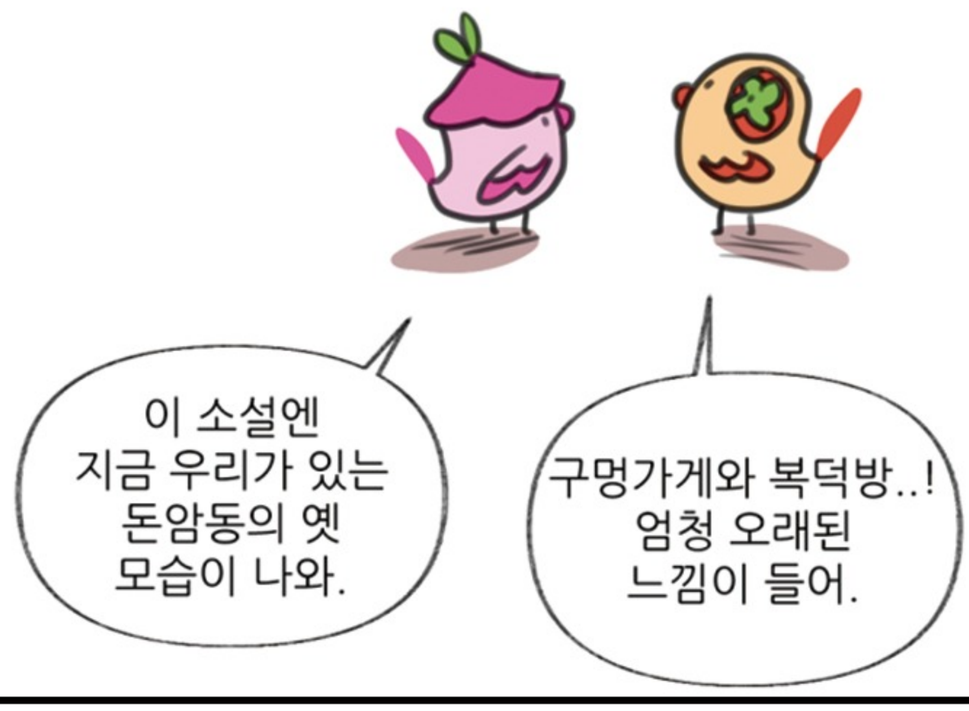








띄엄띄엄 허술한 구멍가게에다 또 가끔 복덕방의 때묻은 헝겊이 펄럭이는 외에는 거의 똑같은 생김새의 조그만 기와집들이 촘촘히 줄지은 돈암동 뒷길인 진이네 동네에는 일요일마다 아이들이 많았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의 놀이는 때로는 부산스럽게 때로는 까닭없이 처량하게조차 보였다.







박완『목마른 계절』



이 작품을 쓴 박완서 작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돈암동으로 이사해 몇 차례 집을 옮겨다니며 살았대.



으아.. 전쟁은 역시 너무 무서워..



그 때의 경험과 추억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남자네 집』(2004) 등에 담겨 있어.



그럼 휴전된 뒤에도 계속 성북구에 살았어?



응. 1953년에 결혼하고 나서 종로구 창신동에 살다가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는 보문동 한옥에서 살았다고 해.



한옥.. 한옥이면 감나무도 있었을까..? 감을 매일매일 먹는 삶..



감나무가 있었던가.. 그건 잘 모르겠네..

4화. 정릉동 - 내가 사는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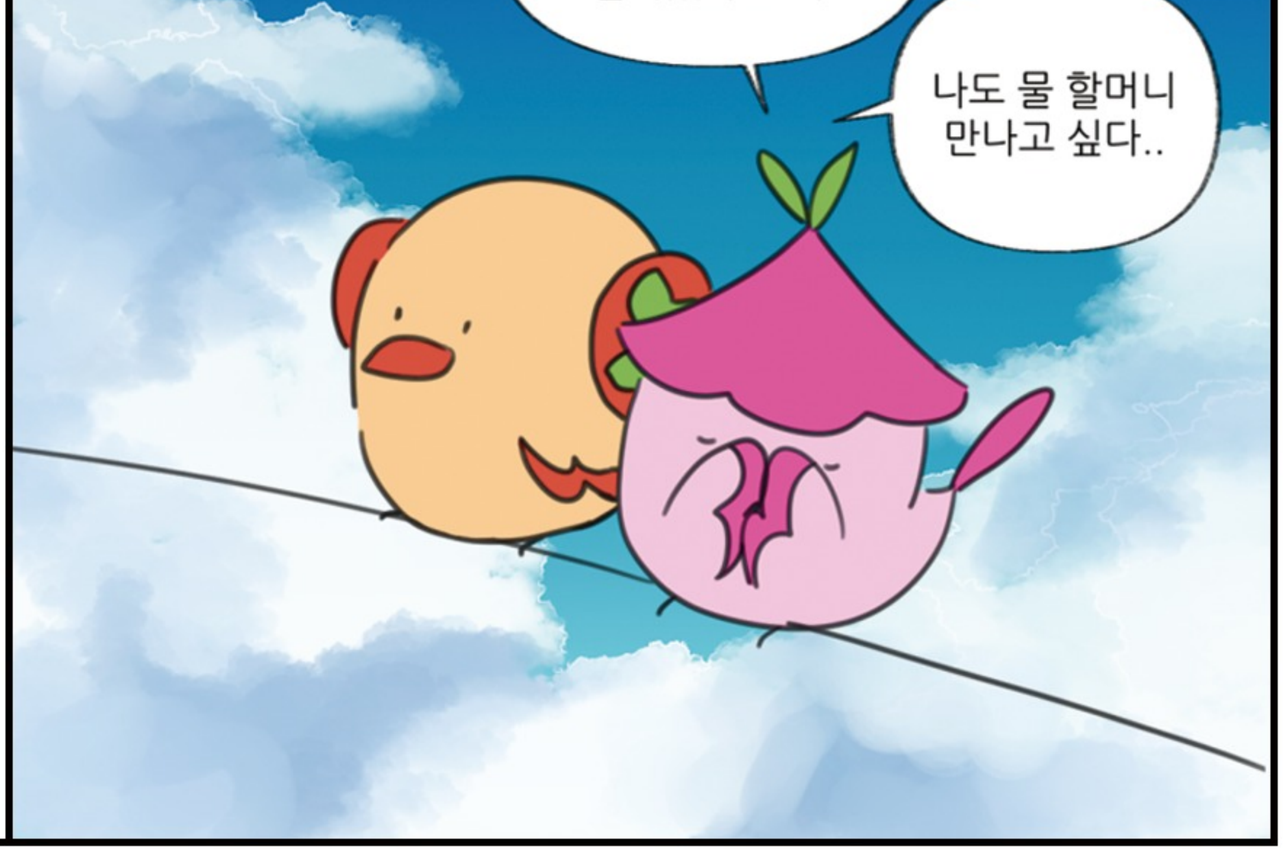






이 물할머니는 처녀 시절에 신령이 내리어 이 약수를 맡게 되었다는 것으로
백발이 흩나는 오늘까지 하루도 쉬임없이 연일 연성으로 수객들의 건강을 위하여
빈다. 이 물로 병을 낫게 하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라고 산시에게 빌고
또 강씨마마—정릉의 유래를 말하는 태조고황제계후신덕성강씨太祖高皇帝繼
后神德星康氏로 정릉이라는 것은 정동貞洞에서 옮겨온 능이라는 이름—이 약수터
너머의 봉국사 보살에게도 빈다.









계용묵「내가 사는 주변」

감차미: 물 할머니.. 어쩐지 수분 가득 촉촉한 이름이야.
이 수필을 쓴 작가는 정릉에서 얼마나 산 거야?

진차미: 작가인 계용묵은 1954년부터 정릉 입구에 있는 재건주택 85호에
거주하다가 1961년 자택에서 별세했대.

감차미: 헉.. 물 할머니는 1957년에 나왔다고 했었지?

진차미: 응. 그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냈었어. 1925년 『조선문단』에
단편소설 「상환」과 시 「봄이 왔네」로 등단했고,
1935년 『조선문단』에 실린 「백치 아다다」가 평단의 관심을 받게 됐어.
『병풍에 그린 닭이』(1944), 『별을 헨다』(1950),
『상아탑』(1955) 등의 작품집이 있지.

5화. 길음동 - 신풍근배커리 약사













재덕은 빵집 뒤 돌산 쪽으로 오르는 짧은 가풀막길을 올랐다.
시야가 툭 트인 길가에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삼양동이라고 불리는 산자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무너진 집들이 몇 채 눈에 띄었다. 재개발 지역인 모양이었다.
재덕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바로 옆 구와 경계선을 이루는 한길 가에 있는 할아버지의 빵집도 어쩌면 일이년 사이에 철거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가 근근히 손에 쥔 자금력으로 얻 딴 데다 이런 빵집을 차릴 수 있을까? 아니 그만한 근력이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김소진「신풍근 배커리 약사」



감차미.. 자?

.....



자는구나. 아까 작가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말이야..
이 작품의 작가인 김소진은 소설가인데 철원에서 태어나서
1967년 서울 길음동으로 왔대.
1991년 단편 「쥐잡기」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고
여러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가족사, 길음동 산동네 이야기 등을 써내려갔어.



.....



그런데 기자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활동하던 중
위암 판정을 받고 사망하고 말았어..



.....훌쩍



자면서 우는거니?

6화. 보문동 - 우리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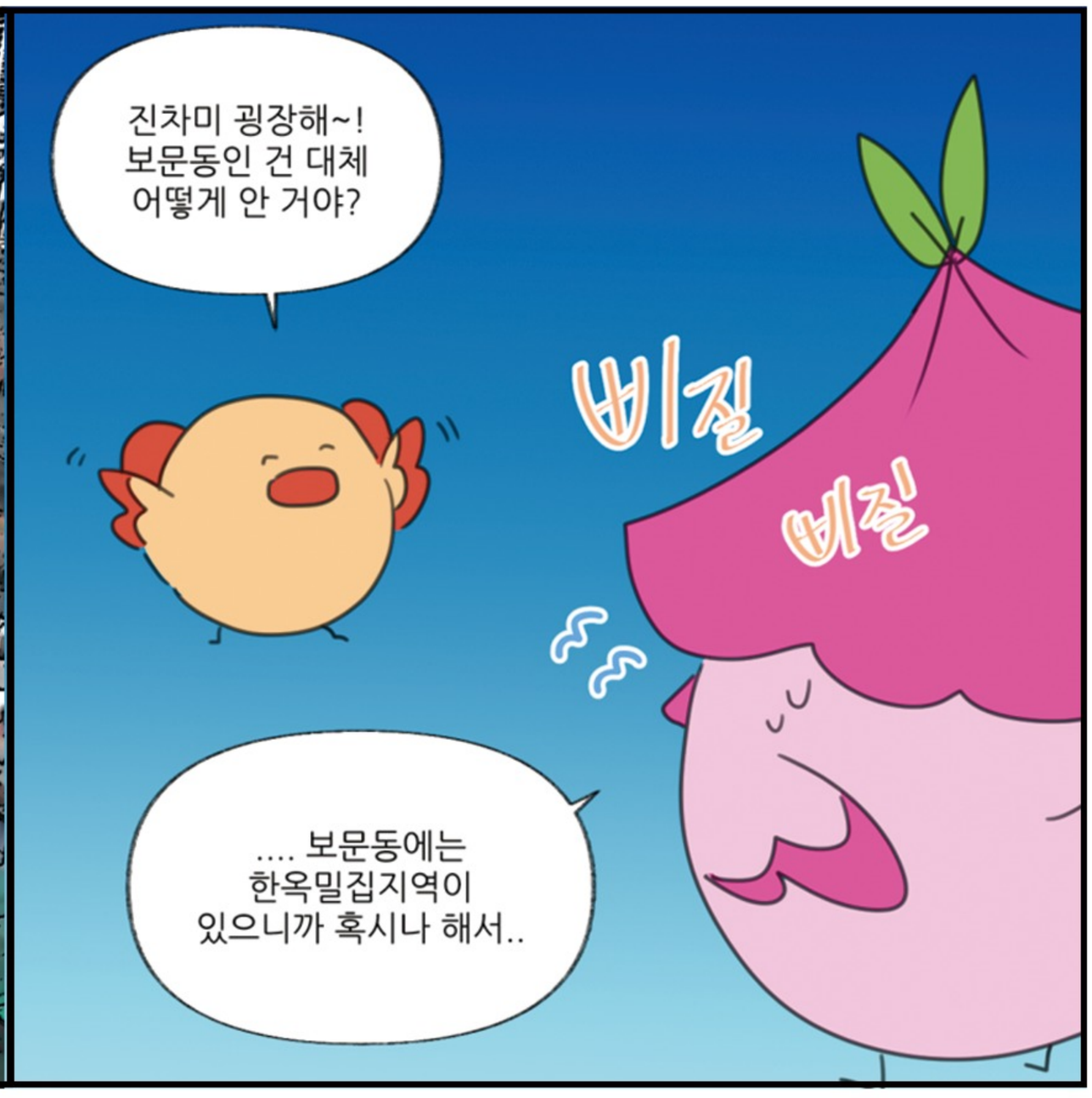




이 산동네가 또 재미있다. 루핑이나 함석을 덮은 판잣집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붉은 벽돌의 2층 연립주택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골목은 미로처럼 좁고 꼬불탕꼬불탕하고 연립주택 그늘엔 판잣집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주택은 시에서 시멘트랑 벽돌을 거저 줘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혜택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에겐 안 가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아무튼 연립주택 때문에 판잣집들이 한층 초라해 보일 뿐이다.




작가인 박완서가
보문동에 살았을 적
동네가 변화하는 모습을
쓴 글이야.
양옥과 연립주택이
들어온 뒤 본래의 풍속과
인심이 변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어.
듣고보니 아쉬운
느낌이야..


진차미 굉장해~!
보문동인 건 대체
어떻게 안 거야?
비질
비질
.... 보문동에는
한옥밀집지역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역시 진차미는
대단해~!
멋져!
...고마워.
폴짝~
폴짝~
앞으로 누가 잘 땐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되겠다.
-끝-

박완서「우리 동네」

감차미: 꿈 속에서 진차미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진차미: 오... 와아... 꿈에서도 내 설명이 듣고 싶었어?

감차미: 아..... 으.. 응! 당연하지!! 아, 박완서 작가가
저번에 얘기해준 『목마른 계절』의 작가 맞지?

진차미: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말 장해 감차미..! 이번 작품에서는
박완서가 보문동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야.
난 오늘까지 합하면 세 번 정도 읽어봤으려나.

감차미: 그렇구... ..... 진차미. 내가 잘 때 소리내서 읽은 거구나?

진차미: 아.

7화.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이것이
어머니가 서른해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고
떡집을 지나다가 잠깐 다리쉼을 하고
동향인 언덕바지 방앗간 주인과 고향 소식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동태만을 파는 좌판 할머니한테 들른다.
그이 아들은 어머니의 손자와 친구여서
둘은 서로 아들 자랑 손자 자랑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다보면 한나절이 나고,
동태 두어마리 사들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면
어머니의 하루는 저물었다.
강남에 사는 딸과 아들한테 한번 가는 길이 없었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오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듣고 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멀리 갈 일이 무엇이냐는 것일 텐데.





30년 세월동안
어머니의 일상은
집과 길음시장을
오가며 이웃과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전국은 물론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인 본인과는
무척 다른 일상이었지.

정말 완전 다른
일상이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사람들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

음음. 시인 본인도
자기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들었음을
세월이 흘러서야 깨달았대.



매일 다니던
좁은 골목에서
세상을 넓고 깊게
바라본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지...

아~ 진차미~!
그 부분 엄청 떫어~
먹지 마~

으게게겍펩

-끝-

신경림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진차미: 으 떫어~!

감차미: 진차미 표정 웃기다~ 방금 알려준 게 신경림 시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했었지?

진차미: 응 맞아. 2014년에 나온 시집 『사진관집 이층』 앞머리에 실린 이 시의 주인공은 정릉동에서 30여 년을 살았던 시인의 어머니이자, 동시대를 살아온 한국의 보편적인 어머니들이기도 해.

감차미: 그렇구나. 정릉동에 엄청 오래 거주하셨네.

진차미: 신경림 시인은 1978년 처음 집을 마련해 길음동에 살다가 4년 뒤, 정릉동으로 이사했고 40년 가까이 정릉동에서 생활하고 있대.



길음시장
(출처: 1990년대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마을아카이브 〈감차미와 진차미〉

8화. 미아리고개 - 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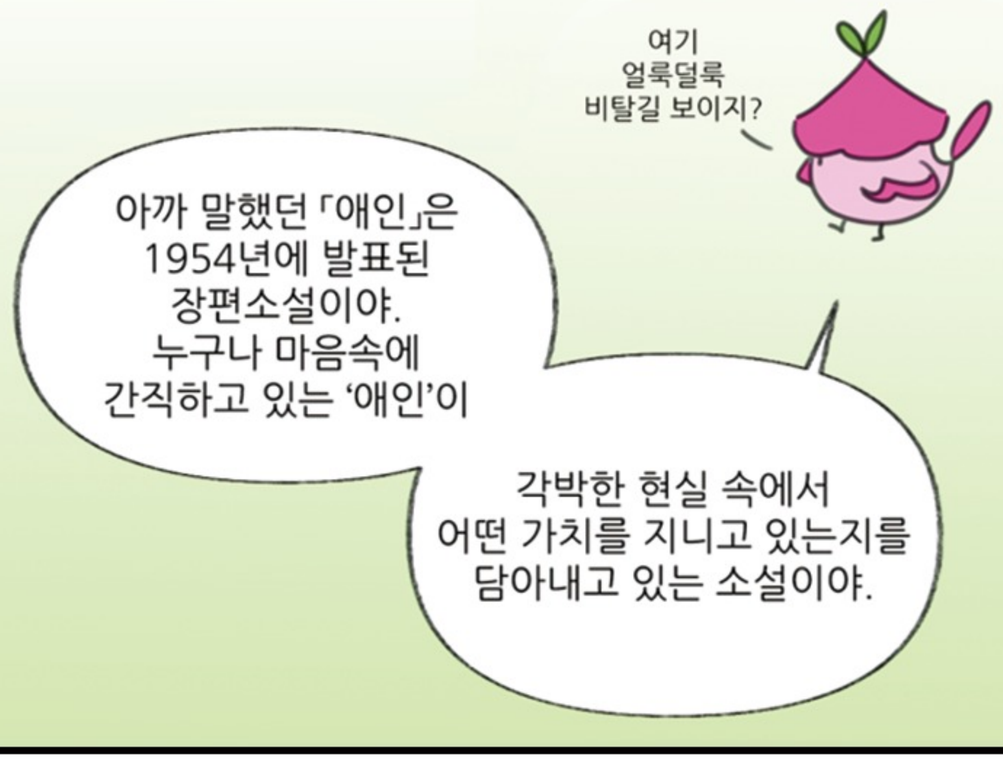

좀 전에 먹은
단감도 좋지만..
나.. 그 최고의 단감을
빨리 먹고싶어..
앗, 저거 아냐?


뭐엇?!
어..어디?
어디에?
휘익~
장난이야.
옛날이었다면
여기도 도로가
아니었어서
속이기 쉬웠을텐데..


이런 아스팔트
도로가 어떻게..?
또 놀리는 거지?
Q
Yo
진짜야 진짜
그래, 김내성의 「애인」에서도
미아리고개가 비탈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


정말..?
여기가 저랬다고?
그렇다니까.
흙이 가득한 길!
여기저기에 나무!

와들 와들 떨고 있는 허중령의 커다란 손이 독수리처럼 편지를 구겨쥐며,
"스톱!"
하고 외쳤다.
"차를 돌려라!"
미아리 고개 위에서의 일이었다.
차는 미아리 고개를 화살같이 되돌아 내려오고 있었다.
얼룩얼룩 눈이 녹다 남은 비탈길이었다.







김내성「애인」



근데 왜 창경궁이 아니라 창경원이라고 해?



감차미도 알고 있겠지만 창경궁은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이
1483년(1484년 완공) 창덕궁 동쪽에 세운 궁궐이야.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순종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창경궁에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



공사? 어떤 공사?



창경궁의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대.



궁궐이 동물원이 됐었다고?! 그럼 언제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됐어?



1983년에 관람이 폐지되고 명칭도 창경원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회복했대.
그렇게 복원을 시작하고, 남아있던 동물들은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졌다나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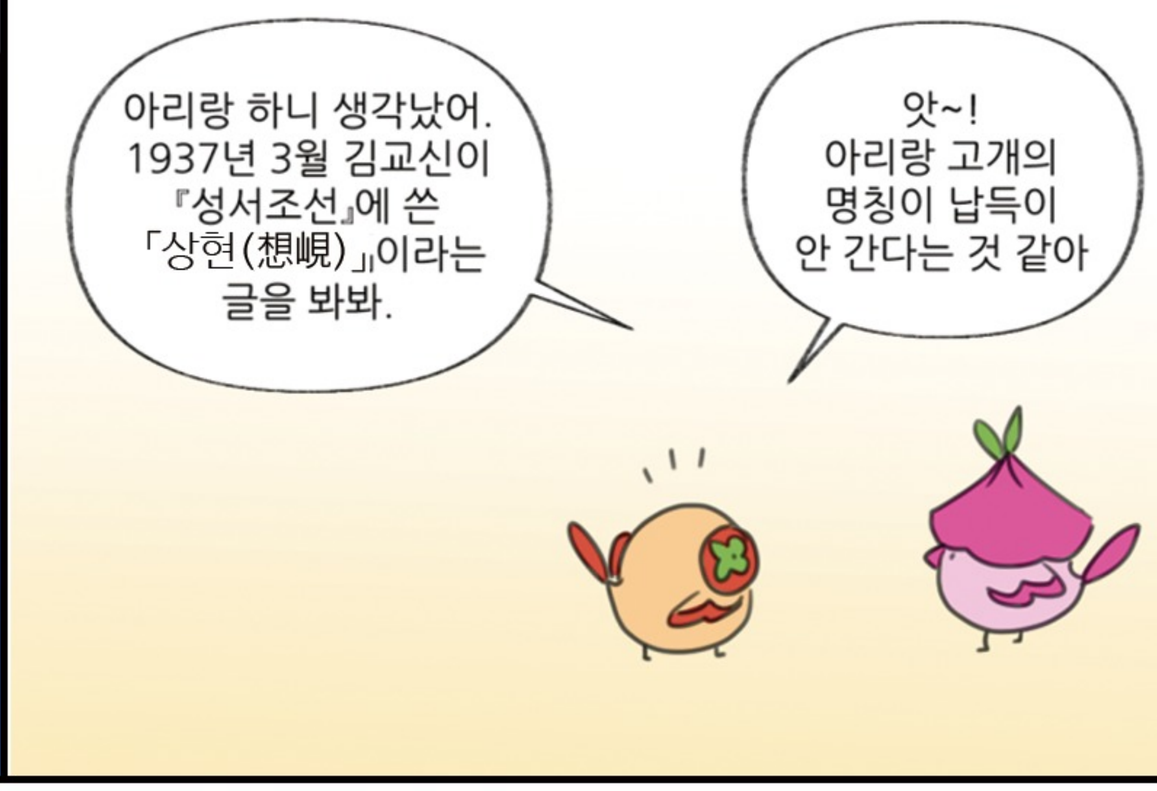
9화. 아리랑고개 - 상현







돈암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고개가 있다.
속칭 아리랑 고개라고 부른다.
그러나이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름 없는 고개에 붙이는 흔한
보통명사일 뿐이지 어떠한 유래가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세상 풍속을 싫어하며 '아리랑'이라는 단어조차
귀에 거슬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이 고개를
으레 '정릉고개' 라고 불러 왔다.
이 고개는 정릉동의 관문이요, 이 고개를 넘으면 정릉이 소재한 까닭이다.



맞아. 아리랑이라는 명칭을 붙인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자신은 정릉고개라고 불렀대.

그 때 친구가..

생각하게 하는 고개라는 뜻의 상현(想峴)은 어떤가?

오..

..라는 제시를 한거야.

아침에 활기찬 몸으로 이 고개를 넘어 시내로 들어갈 때에는 자전거를 밀면서 그날 행할 용기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그날 처리할 용무를 다시 한 번 기억한다.
저녁에 피로한 몸으로 이 고개에 다다를 때는 롯이 소돔 성을 떠날 때의 두려움이 생기는 듯하다.
하루 동안 유형무형의 위험으로부터 피한 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무릇 참되지 못한 일, 너그럽지 못한 일, 탐욕스러웠던 일 등에 대한 참회도 이 고개를 넘는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자아낸다.

김교신은 정릉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하루는 살아갈 용기와 그 날의 일을 상기하고,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참회하는 것도 이 고개를 넘으며 이뤄진다고 했어.

감차미는 평소 이 고개를 넘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어?

나? 나는..

아 안돼 그 생각은 저작권에 걸려

아 그래?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로..

-끝-

김교신「상현」



근데 이 글을 쓴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김교신은 정릉동에서 거주했던 종교인, 독립운동가, 교육자야.



그렇구나~ 그럼 이 글이 올라온 『성서조선』은 누가 만든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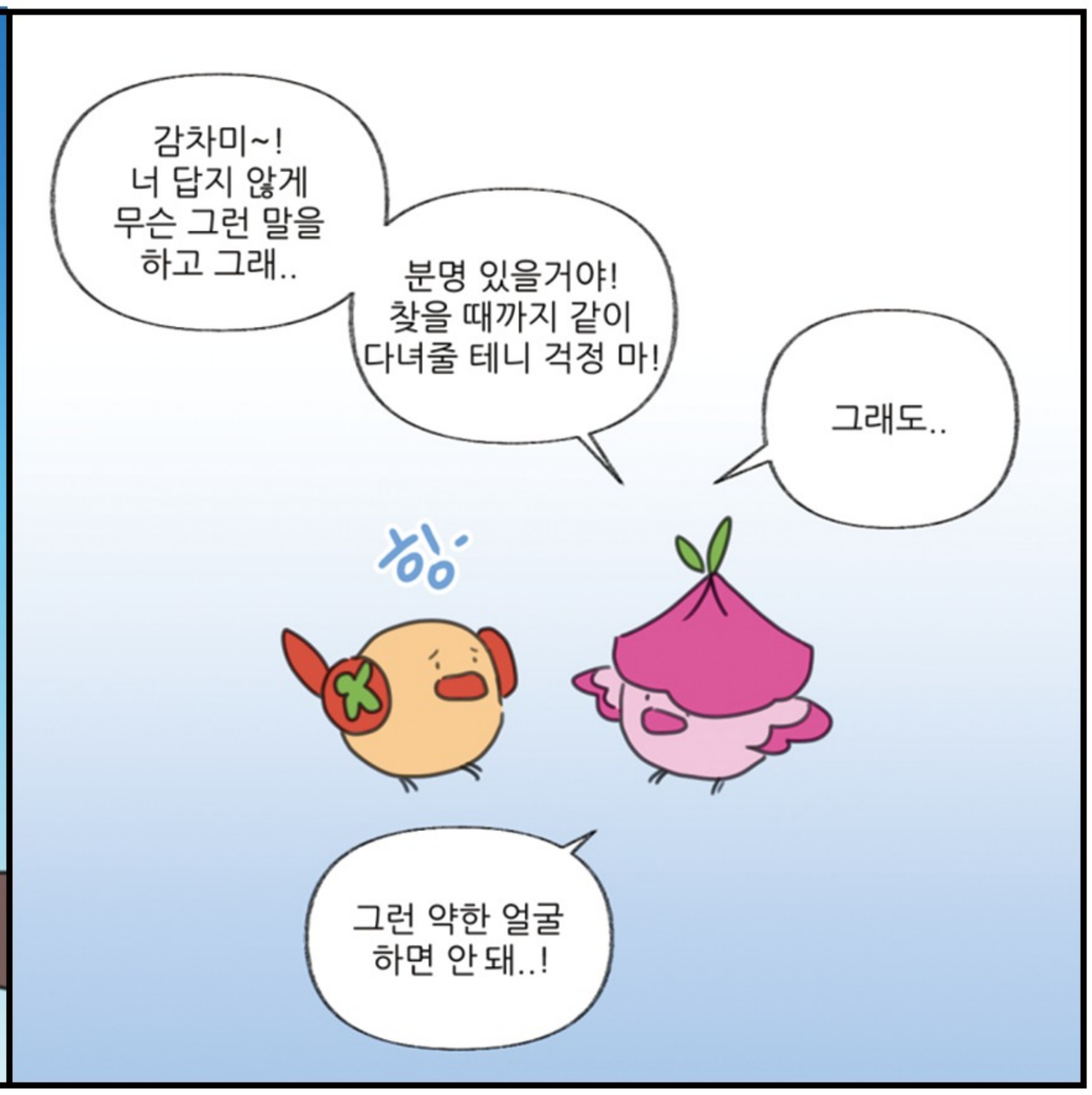
김교신이 조선성서연구회를 조직해서 같이 창간했대.
그런데 1942년 『성서조선』의 머리말인 「조와」에
민족 해방을 염원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1년간 감옥에 가게 되고
『성서조선』은 폐간 됐다고 해..



아... 그건 너무 슬퍼..

10화. 돈암시장 - 돈암동 파 할머니







돈암동 시장 어귀
매일 아침 파를 다듬는
할머니가 길 모퉁이에 있었다 일 년 내내
고개를 들지도 않고
파를 다듬는 할머니는
오직 파를 다듬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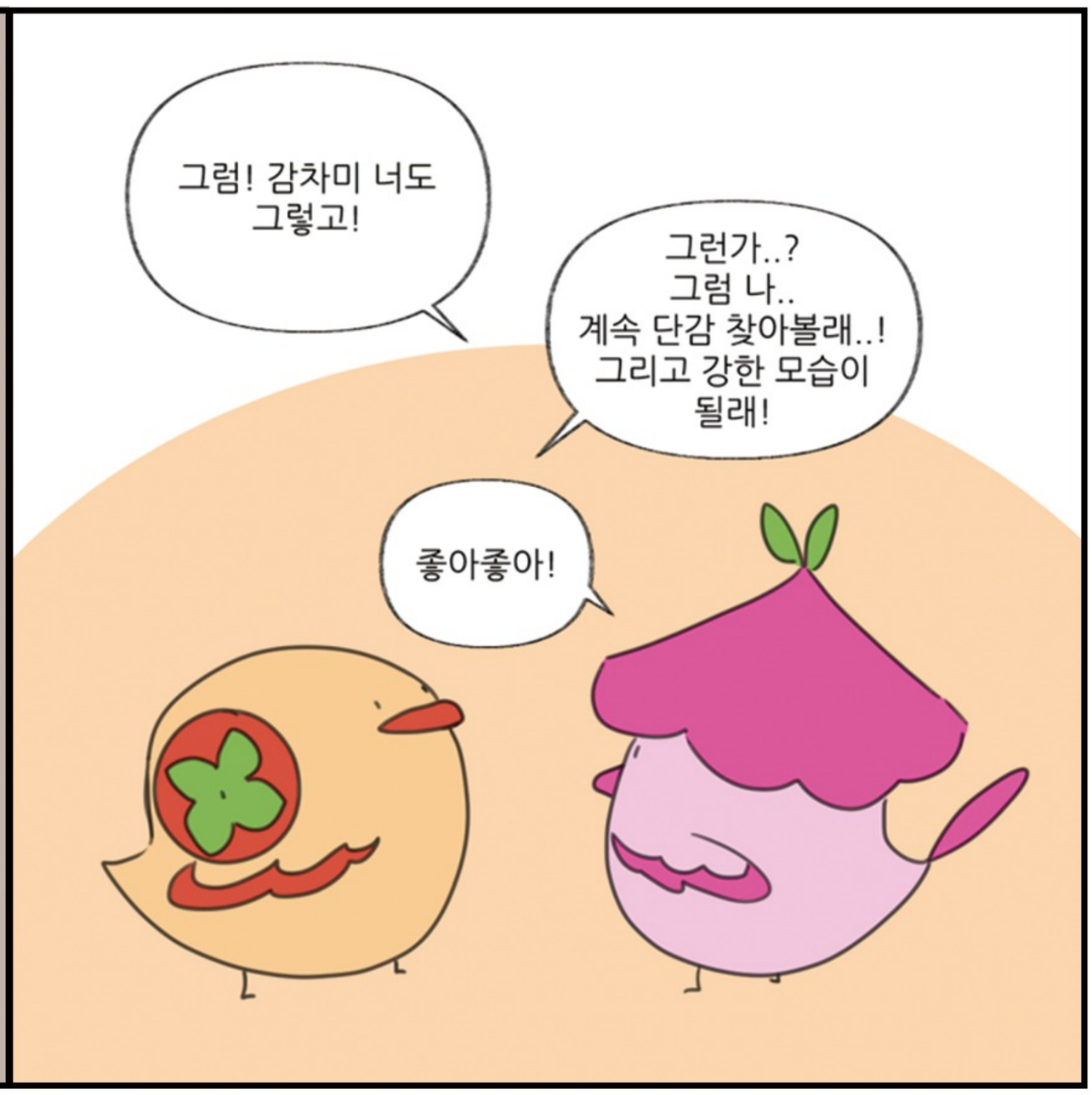
매일 아침
채소 가게 어귀에 나와 앉아
머리가 하얀
파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한번도 고개를 들어 행인을 보지 않고
언제나 구부린 자세로
파를 다듬기만 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
꽃샘바람 지나가는
시장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다듬은 파처럼 단정하게 머리칼을
흙 묻은 손으로 쓸어올리는
파 할머니 얼굴에서 흘낏
돌보다 강인한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일 년 내내
구부린 자세로 있어서
얼굴을 보진 못했었는데
꽃샘추위가 심한 어느 날
머리칼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곤
돌보다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한다는 내용이지.
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온 게 얼굴에
드러난걸까?


그럼! 감차미 너도
그렇고!
그런가..?
그럼 나..
계속 단감 찾아볼래..!
그리고 강한 모습이
될래!
좋아좋아!


앞으로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거야..
순식간에
너무 강해졌잖아
감차미
끝

최동호 「돈암동 파 할머니」



가.. 감차미.. 제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줘..



미안해 진차미. 한동안은 좀 강해져 있을 것 같아.



으아앙.. 내가 미안해.... 괜한 얘기를 해서..



그러고 보니 이 시를 쓴 최동호 시인이 문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도 성북구에 있다고 들었다만.



아 으..응..!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암송하는 것을 듣고 시를 쓰는 문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대.
1976년에 첫 시집 『황사 바람』을 발간한 후 다수의 시집을 펴냈고..
흑.. 감차미.. 너무 부담스러워..

11화. 낙산 - 할미꽃 의젓이 피는 낙타산록의 춘색







서울을 둘러싼 네 산 가운데서 동쪽에 있는 낙타산이란 산으로서는
그리 출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높이에 있어도 다른 북악, 인왕, 종남 등의 여러 산보다 떨어질뿐더러
산의 형용에 있어도 그리 아름다운 것이 못 된다.
북악의 장엄하고 날카로운 곡선이라든가 인왕의 범 같은 위엄이라든가
종남의 아담에 견주면 쇠잔등처럼 싱거운 것이다.
그러나 산기슭의 아름다움에 있어는 감히 다른 세 산의 그것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나는 서울의 네 산 기슭 가운데
으뜸으로 꼽고 싶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낙산의 봄을 추억함과 동시에

빈민들의 토막과 새로 지은 문화주택이 낙산의 원래 모습을 망쳐놨다고 하고 있어.

마구잡이로 개발 되는걸 원치 않았던 것 같네..

흠.. 확실히.. 내가 아끼는 감나무가 잘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슬플 것 같아..

놓으...

감차미가 아끼는 감나무는 어디 있어?

어라? 어디였더라?

하아...

아끼는 거 맞냐고..

-끝-

임화「할미꽃 의젓이 피는 낙타산록의 춘색」

감차미: 분명 그 감나무가.. 어디 있었더라.. 성북동이었나..?
뭐.. 기억 안날 수도 있는 거니까! 성북구에 관련된 다른 작품도 썼어?

진차미: 응, 임화 작가는 1935년 탑골승방(미타사)에 머물기도 하고,
「정릉리의 계곡」(1936) 등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성북구와 인연을 맺었어.

감차미: 그렇구나~ 작가도 성북구에 오래오래 살았을까?

진차미: 아.. 1947년 월북했는데 1953년 8월 '미제간첩' 혐의로 처형당했다고 해..

감차미: 헉....

12화. 혜화문 - 페인


아! 진차미!
나 생각났어!
응?
뭐가?
內化惠
내가 아끼던 감나무!
분명 이 근처였어!


그 감나무에
열린 감이 진짜
맛있거든!
그래? 그건
한 번 먹어보고 싶네.
혜화
그치! 내가 데려다줄게!
분명 우리가 찾는
단감만큼 맛있을 거야!


흠.. 만약 내가
맛없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뭣..? 나.. 나 그러면
진짜 실망해서
집에 틀어박힐지도
몰라... 으앙..


걱정 마, 걱정 마.
그런 말 안 해.
그냥 물어본 거였어.
그럼 왜 물어봤어.. 힝
內化惠
혜화문에 오니까
『폐인』이라는
소설이 떠올라서..

어느 여름 아침이었다. 돈암리敦岩里, 미아리, 북적골서 서울로 서울로 쏟아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매기를 문 개미떼 같이 아물아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소문東小門을 분지히 넘어간다. 먹기 위하여 사는 인간들이라 봇짐한 사람, 지게진 사람, 부담진 사람, 자전거 탄 사람, 배추장사, 무장사, 외장사, 감자장사, 웨치고 떠들고 그들은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기 위하여 또는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무서운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다. 먹고 사는 생활의 싸움! 동소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적지않은 숨찬 고개였다.









노자영「폐인」

감차미: 으아아아아앙.....

진차미: 그만 울어 감차미.. 아, 작가인 노자영은 성북동에 살면서 『신인문학』을 발행했는데 낭만적인 시와 산문을 써서 당대에 인기가 많았대!

감차미: 흑.. 작품 속 주인공은 안됐지만.. 작품의 작가가 인기있는 삶을 살았다니 다행이야..

진차미: ... (폐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건 말 안해야겠다.)



노자영 집터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13화. 조지훈 집터 - 방우산장기







방우산장放牛山莊'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 스스로 붙인 집 이름이다.
집이란 물건은 고루거각高樓巨閣이든 용슬소옥容膝小屋이든지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요, 떠 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매 집 이름도 특칭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고 보니 육척 수신瘦身 장구長軀를 담아서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산장이라 했으니 산 속에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로되 십리 둘레에 일점 산 없는 곳이 없고 보니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深山에 있거나 시항市巷에 있거나를 가리지 않고 일여一如한 산장이다. 이는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중략)



소??
갑자기??

심우장같은 맥락인거지.
중생이 원래 갖고 있는
청정한 성품을 소에
비유한다고 해.

그래서
마음 닦는 일을
소 찾는 일 (심우)
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대.

그럼 방우산장기의 뜻은
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방우, 즉 소를
놓아준다는 뜻인데
자유정신을
드러낸거라고 해.

잘가렴~

앗, 그럼 소가
있든 없든 상관
안하겠다는 맘인거네!

그렇대! 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라고 여겼나 봐.

...뭘 그렇게 봐?

빠안-

.. 방감 중이야..

저 감을..
마음 속에서
놓아주겠어..

그래.. 힘내 감차미..!

너덜..

너덜..

끝

조지훈「방우산장기」



아무리 그래도 썩은 감을 먹으려고 한 건 너무했어 감차미.



헤헤.. 배고파서 그만.. 아, 여기 주변에 뭔가 시가 적혀있어!



내가 말해준 시의 작가인 조지훈의 시들이야. 조지훈은 시인이자 학자, 교육자였어.



성북구랑 연이 엄청 깊었나 봐. 이런 공간이 생길 정도면..



광복 이후 성북동에 한옥을 마련해서 '방우산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근처에 살고 있던 김기창, 김환기, 윤이상 등과 교류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지?

14화. 성북동 - 노시산방기





지금 내가 거하는 집을 노시산방이라 한 것은 삼사 년 전에 이군이 지어 준 이름이다. 마당 앞에 한 칠팔십 년은 묵은 성싶은 늙은 감나무 이삼 주가 서 있는데, 늦은 봄이 되면 뾰족뾰족 잎이 돋고, 여름이면 퍼렇다 못해 거의 시꺼멓게 온 집안에 그늘을 지워 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사는 주인,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마치 감나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사는 것쯤 된지라, 이군이 일러 노시사라 명명해 준 것을 별로 삭여 볼 여지도 없이 그대로 행세를 하고 만 것이다.
(중략)
아무튼 나는 내 변변치 않은 이 모옥을 노시산방이라 불로 오는 만큼 뜰 앞에 선 몇 그루의 감나무는 내 어느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무들이다.





냠- 냠- 냠- 냠-

음냠냠냠냠
그래도 역시 노시산방
근처라 그런지
더 맛있어~

앗 그치만
김용준에게서 노시산방을
물려받은 김환기가
수향산방으로 이름을
바꿨으니

그냥
평범한 감나무..

진차미.

톡-

이제 그만.

와앗.. 미...
미안 감차미.....

흠칫-

아.. 앞으로는..

감 먹을 땐
절대 말 안 걸어야겠다..

-끝-

김용준「노시산방기」



가끔 보면 진차미는 정말 분위기를 깬다니까~!



진짜 분위기를 바꿔놓는 건 너야 감차미..... 수향산방 마음에 들어?



응! 응응응응응! 이런 집에 살던 작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작가인 김용준은 한국미술사학자, 화가, 평론가, 수필가야.
1934년 노시산방(성북동 274-1)으로 이사하여 이태준 등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어. 1944년 노시산방은 김환기·김향안 부부에게 넘기고 의정부로 이사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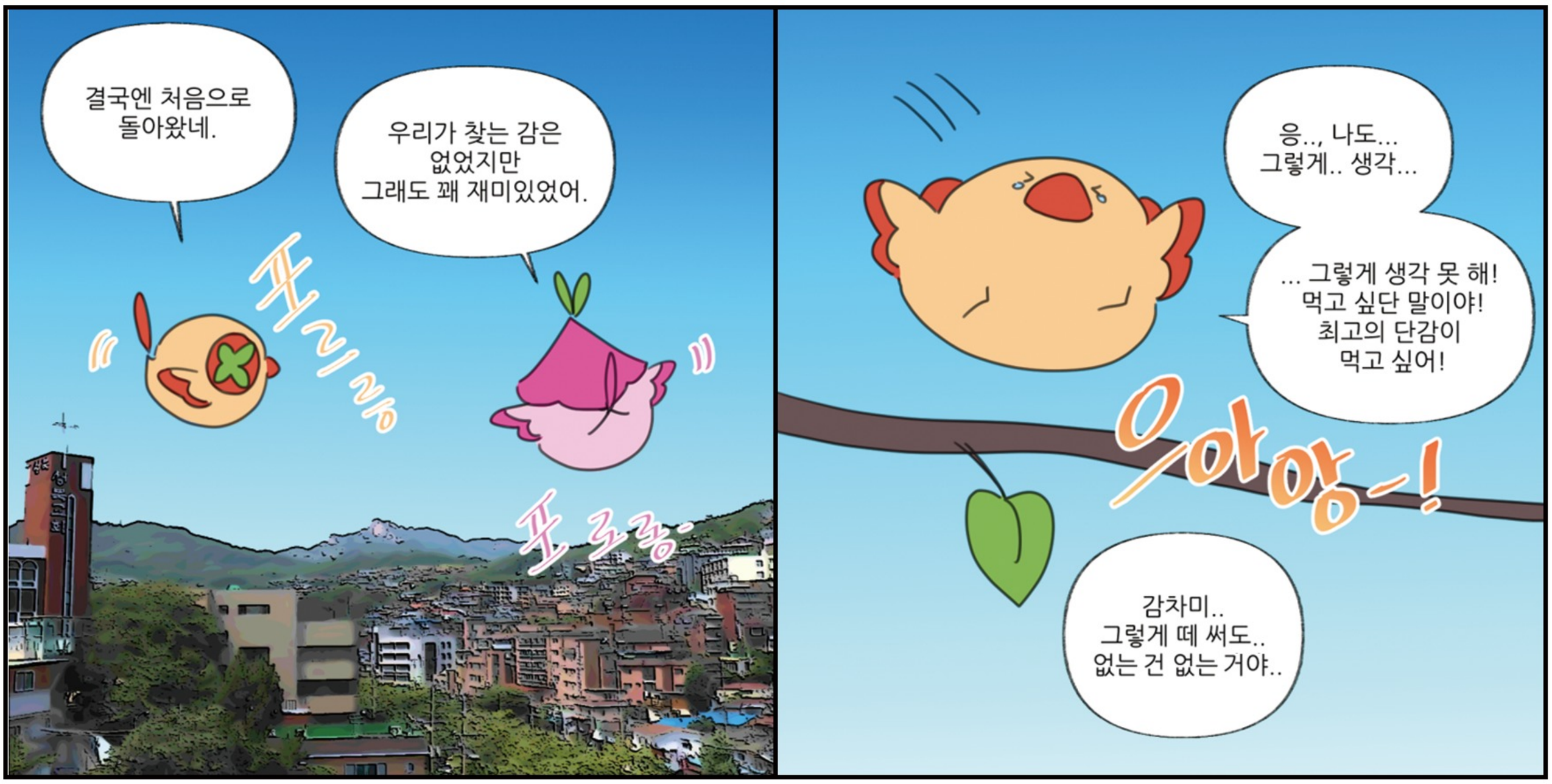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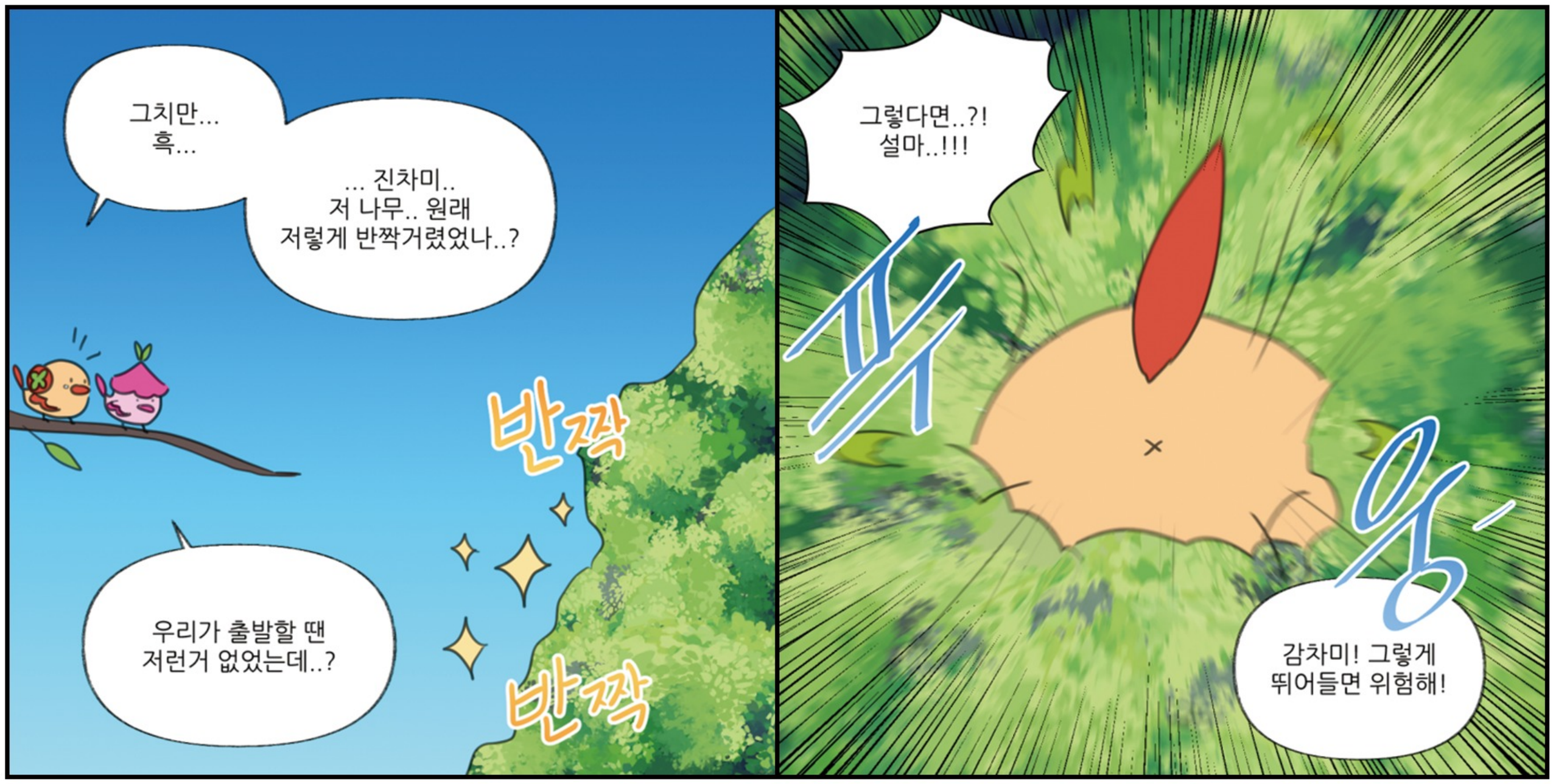
하.. 내가 좀만 더 일찍 태어났었어도 이 감나무집은 내 거였을 텐데..



진심이니.

15화. 성북구 성북동


결국엔 처음으로
돌아왔네.
우리가 찾는 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었어.
찌이이
포르릉
응.., 나도...
그렇게.. 생각...
... 그렇게 생각 못 해!
먹고 싶단 말이야!
최고의 단감이
먹고 싶어!
으아앙-!
감차미..
그렇게 떼 써도..
없는 건 없는 거야..


그치만...
흑...
... 진차미..
저 나무.. 원래
저렇게 반짝거렸었나..?
반짝
우리가 출발할 땐
저런거 없었는데..?
반짝
그렇다면..?!
설마..!!!
감차미! 그렇게
뛰어들면 위험해!

진짜 있었구나..!

.....

너무 쬐깐해.

뭐?! 정말 있어?
출발하기 전엔
없었는데..!

... 쬐깐해..
어쩔래 감차미?
먹을거야?

포스락-

.....
아니.

야는 분명 우리가
출발한 후에 태어나서
그렇게 찾아다녀도
안 보였던 거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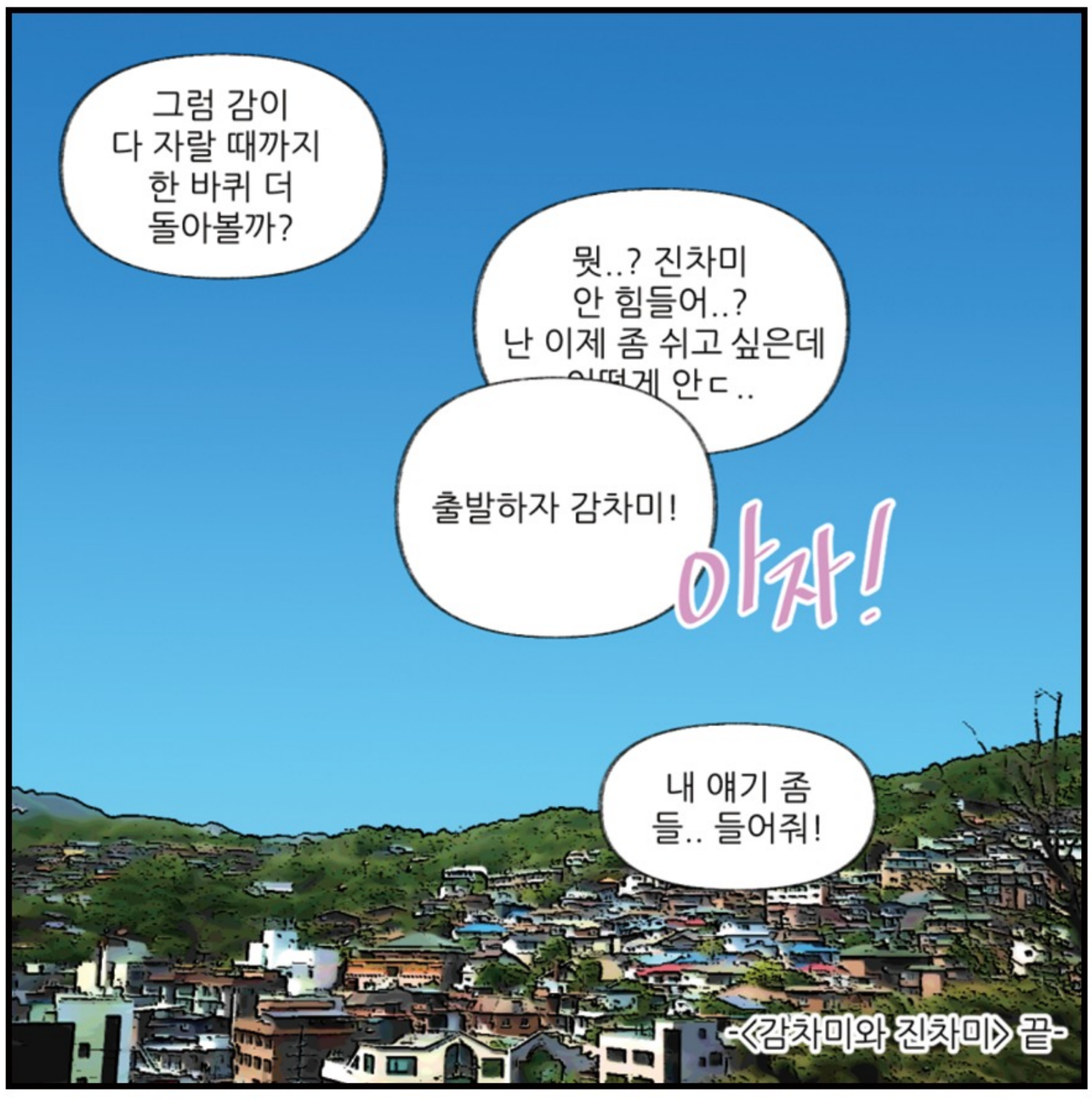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 감이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내가 키워줄래.

우리보다 커다랗게
자라면 같이 나눠먹자..!

감차미....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진차미 꼭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

찌잉...


그럼 감이
다 자랄 때까지
한 바퀴 더
돌아볼까?
뭣..? 진차미
안 힘들어..?
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안ㄷ..
출발하자 감차미!
아자!
내 얘기 좀
들.. 들어줘!
-《감차미와 진차미》 끝-

제작 후기

안녕하세요 「마왕성북」과 「감차미와 진차미」 를 그린 김정현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두 작품이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분과 만화를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들어 더욱 그 말이 와닿습니다.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얕은 지식이 만화를 그리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북구의 풍경이 더욱 다양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이번에 출판된 두 작품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의 풍경도 다양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왕성북」과 「감차미와 진차미」를 보고 성북구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로 들어왔던 질문 중 몇 가지를 뽑아 만든 Q&A입니다.

Q. 「마왕성북」에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는?
A. 「마왕성북」에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는 지젤입니다.



Q. 감차미와 진차미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A. 감차미는 달콤한 단감즙으로, 진차미는 진달래 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마왕이랑 용사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A. 간발의 차로 용사가 이깁니다.

Q. 감차미와 진차미의 성별은?
A. 둘 다 수컷입니다.



성북구의 문학 이야기 「감차미와 진차미」

세계 최고의 단감을 찾겠다며 길을 나선 감차미와 그의 절친 진차미.
감이 너무 좋은 나머지 몸이 달콤한 단감으로 변해버린 감차미와
진달래 향기를 맡다가 그만 진달래에 몸이 끼어버린 진차미
둘의 달콤한 성북구 문학 탐방기를 함께 즐겨보세요!

참새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성북문화원 인스타그램과 성북마을아카이브를 방문해주세요
(인스타그램: @seongbuk_cultural_center)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성북마을아카이브

비매품/무료
07910
9 791198 599025
ISBN 979-11-985990-2-5